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공모지침 변경... '낙하산 인사' 논란

국민의 힘 출신 선임 위해 '에너지 전문가 조항' 삭제 의혹 커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제 2대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의 '낙하산' 인사 선임 논란(광주일보 12월 4일자 7면)이 일고 있다. 제 2대 총장 후보자 선임 공모 지침이 초대 총장 선임 공모 기준보다 크게 완화되면서 에너지공대 총장으로 진정부적 성향의 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켄텍에 따르면 '제2대 총장 초빙 공고'를 내면서 '초대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에 견줘 대폭 완화해 초빙 공고를 것으로 확인됐다. 켄텍은 초대 총장 공고와 달리, 2대 총장 초빙 공고를 내면서 후보자 지원 자격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성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에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해당 조항의 경우 에너지공대를 이끌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켄텍 설립 취지인 '에너지 분야의 미래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 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켄텍은 그러나 제 2대 총장 초빙 공고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근 열린 '켄텍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추천할 차기 총장 후보로 3명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진정부적 성향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명의 차기 총장 후보자에는 현 켄텍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도 연구부총장, 포항공과대 총장을 역임한 김도 씨, 충남대 총장과 국민의 힘 당 협위원장 출신 정모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3명의 후보자 중 정모 씨의 경우 충남대 총장 이력은 있지만 초대 총장 공모 기준을 적용하면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켄텍 총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동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켄텍 총장은 경우 이사회가 추천된 총장 후보군 가운데 1명을 선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켄텍 총장에 임용되게 된다. 켄텍 이사회를 구성하는 13명 이사들이 대부분 한전 등 전력그룹사 임원 및 정부 부처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됐고, 정부 부처인 산업부가 켄텍을 직접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켄텍은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 총장 선임 절차에 나설 계획이지만 연말 예산안 등 현안 처리 등으로 오는 2025년 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과일 케이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베이커리 매장 에서 직원들이 독일식 과일 케이크인 '슈틀렌'과 수제 쿠키로 만든 크리스마스 한정판 '쿠키하우스'를 선보이고 있다.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하우스 모양의 쿠키제품 외에도 연말 홈파티 분위기를 연출에 좋은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스타트업 글로벌 IR 코칭 워크숍 개최

해외 진출 마케팅 등 소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일 'IBK 창공 광주'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IR(투자 유치활동) 코칭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무역협회는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전남대학교 링크3.0 사업단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광주 전남 소재 유망 바이오·모빌리티·IoT 스타트업 10개사 내외를 초청, 해외 투자 유치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멘토링 결과물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의 한 축이 될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지속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의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또 미국계 투자사인 '500글로벌'이 미국 시장 진출 기본기 강의를 열었다.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웹서비스 글로벌 VC 이사, 월마트 산하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정기 이사, 모빌리티펀드 이사 등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 앞에서 IR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VC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이마트 광주점 최대 50% 할인

이마트 광주점이 오는 12일까지 '크리스마스 용품전' 행사를 열고, 크리스마스 용품 등을 반값에 선보인다. 이는 지난달부터 급등하고 있는 연말 홈 파티 용품 매출 후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이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광주점은 오는 12일까지 '크리스마스 용품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행사카드(이마트·삼성·KB국민·신한·우리·롯데)로 결제 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품

10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크리스마스 트리 제품(LED트리·완성트리·베이지트리)은 최대 30% 할인하고, 크리스마스 LED전구(LED전구·LED스트링·LED 와이어전구)류는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연말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광주점 고객들이 와인과 델리 식품,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소품 등 홈파티 용품 매출이 급등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 광주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30일 기준 스파클링 와인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신장했고, 안주류로 인기가 높은 BBQ 등 스모크델리는 32.5%, 파티를 위한 빵·케이크 등 냉동디저트류는 30.3% 신장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소품 트리, 인형, 파티용품 등은 300여개가 판매되며, 전년 판매량을 훨씬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기 이마트 광주점장은 "최근 홈파티가 특별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트렌드가 됐다"며 "앞으로도 홈파티 관련 상품과 메뉴들을 개발해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임진달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임명...HS효성 출범 후 첫 인사 단행

HS효성이 4일 임진달 HS효성 더클래스(주) 대표 이사의 사장 승진 등 출범 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진달 대표이사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에서 사장 승진자가 나온 건 10여년 만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조용수·성낙양 각자대표제

제에서 임진달·성낙양 각자대표체제로 바뀐다. (주)HS효성 지원본부장 신덕수 전무와 효성 홀딩스 USA 최고경영자(CEO) 이종복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가치·책임 경영' 기조에 기준을 뒀다. 이밖에 HS효성첨단소재(주) 박형민 지원실 임원이 전무로, 주정권 Technical Yarn PU장과 김태

원 미래전략실 미래전략 담당이 상무로, 이충열 타이어보강재PU SCTO과 한창석 PR1팀장, 김석범 지원실 총무팀이 상무보에 이름을 올렸다. HS효성은 "이번 승진 대상자들은 온고지신 정신으로 과거의 좋은 유산을 건강한 혁신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인사는 전략·지원·연구개발 분야까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있는 인사다"고 자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2.2→2.1%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번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경제 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포인트(p) 낮췄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건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p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p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4.00 (-36.10)
↓ 코스닥	677.15 (-13.65)
↑ 금리(국고채 3년)	2.626 (+0.041)
↑ 환율(USD)	1415.05 (+12.15)

금호타이어,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금호타이어가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혁신대상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한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호타이어는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개발 프로세스 Digitalization 구축 ▲전기차용 브랜드 EnnoV

출시 ▲대의 타이어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인정 받았다. ESG경영 측면에서는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비전을 수립해 ▲2045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사업장 태양광 발전 구축 ▲지속가능한 재료 8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글로벌 협력사 ESG평가 확대 등의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제 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ESG 경영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노티드·키친205 등

광주신세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에 적합한 다양한 케이크들을 선보인다. 우선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한 '노티드'는 4일과 11일 각각 새로운 디자인의 케이크들을 내놓는다. '리본 쇼콜라 라스', '스트로베리 스노우', '허그 미! 스노우맨', '메리 피스타치오 트리' 등 연말 파티 분위기를 내는 디자인의 케이크와 독일 현지에서 크리스마스 전통 디저트로 여겨지는 '슈틀렌'도 함께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입점과 동시에 오픈런을 일으킨 노티드는 새로 선보이는 케이크에 대해 사전예약을 통해 최대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16일까지 카카오톡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케이크를 수령할 날짜를 지정해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본관 지하 1층 행사장

에서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팝업스토어를 열고 '하트 티라미수'도 선보인다. 하트 티라미수는 오리지널, 솔터카라멜, 피스타치오, 레몬 얼그레이 등 4가지 맛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키친205', '궁전제과' 등 베이커리 브랜드에서도 딸기케이크를 판매한다. 키친 205는 딸기케이크를 일별 300개 한정 판매하며,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에 각각 선착순 번호표를 배부해 '딸기발케이크'와 '딸기발 케이크 미니' 중 1개만 구매 가능하도록 했다. 궁전제과는 기준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에만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에서 준비한 색다른 케이크들로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